

투데이 칼럼

우리 사회가 납득하는 정의는 무엇인가-(하)

이와 관련하여 생각나는 것이 인류가 만든 최고 수준의 국가라는 스칸디나비아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의 민주사회주의가 이 시기삼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가 노르웨이에 살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이념이 사회주의적 분배의 정의였고 그것은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었다.

스칸디나비아 사회는 '우리는 이웃의 행운을 시기한다'라는 소위 안테의 법칙(The Law of Jante=anteloven)이 지배한다고 한다.

안테의 법칙은 1933년 덴마크 노르웨이 작가 Aksel Sandemose의 소설 'A Fugitive Crosses His Tracks' (도망자, 지나온 발자취를 다시 밟다)의 무대로서 주민들 모두가 서로를 다 알고 지내는 덴마크의 소도시 Jante의 삶에 등장한다.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당신이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 것', '당신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등과 같은 평등 문화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소설에서 작가는 Jante 마을의 법칙으로 아래 열 가지를 발견해 낸다.

- 1.You're not to think you are anything special.
- 2.You're not to think you are as good as we are.
- 3.You're not to think you are smarter than we are.

- 4.You're not to convince yourself that you are better than we are.
 - 5.You're not to think you know more than we do.
 - 6.You're not to think you are more important than we are.
 - 7.You're not to think you are good at anything.
 - 8.You're not to laugh at us.
 - 9.You're not to think anyone cares about you.
 - 10.You're not to think you can teach us anything.
- 일본인의 생활법칙인 메이의쿠(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된다)와도 비슷한 개념 같다.
- 절대군주제하의 유럽이나 중앙모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Telos) 같은 철학에 기초를 둔 왕권신수설에 따른 신분제가 오랫동안 사회 정의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18세기의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으로 절대군주제가 무너지면서 다수결적 민주사상과 통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등장하여 새로



최병효
주노르웨이대사, LA총영사역임

운 정의가 되었다. 그 후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시민의식이 더 진전되면서 개인의 자유와 동시에 개인의 책임, 또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 받아야 된다는 공동체주의가 정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안테의 법칙은 이 공동체주의 사상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어느 단계의 정의를 신봉하고 있을까? 수십년을 가족처럼 믿고 지낸 사람이다. 국사에서 그 도움을 조금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니 상황이 불리해지자 그는 "시녀"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공식석상에서 언급할 정도로 신분제를 신봉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받들고 있으니 우리 정치는 아직 고대 에테네 참주제나 중세 봉건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고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런 일은 없고 봉건제 국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하였다. 그 후 그 보

다 더한 일이 밝혀졌으니 우리는 봉건제 국가만도 못한 나라인 셈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는 말인가? 그의 해명을 듣고 싶다.

유사 이래 중앙집권적 1인 절대군주제만 알다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친 후 주어진 민주주의를 연습한지 70년이나 아직 걸음마 단계로 보고 조금해서는 안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어려운 지정학적 여건에서 짧은 시일에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이룬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고맙게 알고 집권자의 범법행위에 눈 감고 조용히 있기에는 지구화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여러 정보가 너무 빨리 퍼지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 탄핵이나 세월호 진상규명 요구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면 우리 백성들의 정의의 개념은 공리주의를 넘어 공동체주의에 도달한 것 같은 희망적 느낌도 든다.

그러나 국가나 국민이 어찌되든 알 바 없고 자기는 잘못 한 것이 아니라 왕좌에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추한 모습과 이를 지켜주는 것이 의리=정의라고 믿는 집단을 보면 이들과 일반 백성간에는 국가나 정의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너무 크다고 느껴진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며 공리주의 수준의 정의라도 지켜지도록 눈을 바로 뜨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독자제언

다문화 가정불화의 원인 불법결혼증개 근절

우리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길거리나 마트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을 마주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설지않게 되었다.

최근 몇년 사이 코리이드림을 꿈꾸며 입국하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여성들의 국제결혼도 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들의 가솔이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결혼 이민자의 가솔 상당수가 언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정폭력 등 가정불화가 원인이 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사기결혼을 한 후 유희로 잠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기 결혼으로 인한 피해 가족들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이와 정반대로 결혼이주여성이나 탈북민들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농촌이나 도시 저소득층과 결혼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히 경제적 어려움도 커지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언어 장벽으로 갈등을 빚다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피해도 만만치않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국제취득 목적 결혼은 결국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양산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순박한 농촌 총각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다문화 시대에 걸맞는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기대해 본다.

김소정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독자제언

연말 금융기관 자체방범 강화해야

한탕주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의 모의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그중에서도 항상 다액 현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특히 경비원 및 청원경찰이 없는 점포는 더욱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범죄자들은 그러한 약점을 놓아 놓지 않는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혼란한 연말, 현금이 오가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범죄가 발생 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더욱 더 방범의식을 가다듬어 다칠지 모르는 범죄 발생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경찰열도 비장한 각오 하에 방범진단 실시 및 기계경비업체와 모의 훈련을 실시하는 등 연말 금융기관 대상 범죄 발생

에 대비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모든 범죄예방은 경찰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이지만 금융기관 직원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강한 의식이 결여된다면 범죄는 막지 못하게 된다. 아울러 가스분사기 확보 등 방범장구 점검, 기계경비업체와 모의훈련 실시 등 공조체계 강화, CCTV 화질상태 점검, 비상벨 위치 숙지 및 작동상태 점검, 경비원 확충, 청원경찰 민원 편의 제공 업무에 탈피한 강력한 방범의식을 확립한 본연의 자세 견지 등 모든 분야를 세심히 점검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 어떠한 상황이라도 발생해도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자위방범 태세를 강화하고 긴장의 연속 근무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종현 원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사설

도의회 청렴도 전국 평균 밑돌고 있다

전북 도의회가 정신을 차려야겠다. 도의회의 청렴도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는 평가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한 내용과 다른 평가라서 도의회는 놀랐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평가에서 전북의 도의회에게 전국 평균 5.97 점 보다 높은 6.00 점을 주었다. 그런데 평가라는데 어느 한 쪽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지역주민들의 평가로는 5.06으로 전국 평균을 한참 밑돌고 있다.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도의회가 어느 쪽의 평가를 받아들일지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멀리 떨어져서 바라본 국민권익위의 평가보다도 함께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부 느낌이 더 적실하다. 지역주민들의 평가가 먼저 존중돼 마땅하다는 이야기이다.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더 정확하기도 하려니와 도의회는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도의회의 청렴도가 낮다고 판단하면 거기에 토를 달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아쉬움의 말이 나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도의회는 도내 자치단체들이 비리로 얼룩져 있다는 보도를 접했

을 것이다. 그 모두가 반면교사의 사례이다. 본보는 지난 사설에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높은 청렴도를 거듭 주문한 바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보고한 바 전북 공무원들의 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떨어진 것을 답답하게 여긴 까닭이다. 저번에 있었던 이진식 김제 시장의 법정 구속은 김제 시민들에게 여간 큰 불행이 아니다. 그리고 김승환 도교육감에게 다친 일도 똑 같다. 인사 비리 혐의로 감사원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는데 그 때문에 도교육청이 이번에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부인군의 공무원들이 엄중한 사법 판결을 받은 가운데 웃을 벗겨낸 일도 있었다. 도의회는 그 모든 사태들을 허투로 넘겨서는 안된다.

도의회 의원들도 청렴해야 한다. 도의회 의원들은 자기에 부여된 공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자기 유혹을 이겨야 한다. 이번에 지적 사항을 보니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도 있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당한 개인도 있다. 주민들에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한 일인가. 도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눈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다들 조심해야겠다.

전북도 올해 기업유치 실적이 긍정적이다

올해도 어느새 연말로 접어들었다. 올해가 동지였으니 연말이 분명하다. 그래서 전북도에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 보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묻고 싶다. 그동안의 유치 작업이 약속했던 만큼 활발했는지 궁금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기업유치 실적을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 새만금 속 삼성 유치가 무위로 돌아간 이후 도지사가 발근했던 그대로 새만금개발청의 일하는 모양새가 시원치 않았던 까닭이다. 그리고 그 시원치 않음은 전북도 또한 마찬가지였지 싶다.

도민들은 지금 전북도를 바라보고 있다. 전북도에 지역 발전의 최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유치 실적에 대해 보고할 준비가 아직 안돼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 전북도가 기업유치 작업을 활발하게 벌였는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지금이다. 사실이지 전북도가 지난 십수년간 보여준 기업유치 실적은 만족스러운 게 아니다. 많은 MOU 체결이 있었지만 나중에 실일이 되었던 게 드물지 않기 때문이다. 도내에 일자리가 부족하

고 고용이 열악한 이유는 많다.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를 틀러면 기업 유치의 저조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가 익히 알고 있는 그대로 기업 유치는 MOU 성취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양해각서가 데스크 위에 쌓여 있다고 낙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전북도는 도민들로부터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에서 서둘러 보고했을 것이다. 얼른 생각할 때 그 많은 양해각서들은 전북도의 발표 그대로 대단한 성과였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는 실제로 투자하는 기업이다. 투자가 없다면 양해각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바라는 바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양해각서에 서명한 기업들을 상대로 꾸준히 투자를 종용해야 한다. 투자를 하겠노라고 서명만 해놓고 그 시기를 미루다가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전북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업유치 작업이 활발한지 늘 확인해볼 일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